특별기고

병오년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



정 기 연
주필

2026, 병오(丙午)년 '붉은말' 새해가 시작되었다. 병오년은 60 갑자 중 43번째 해로, '병(丙)'은 불의 기운을, '오(午)'는 말을 상징하며 남쪽은 적색이므로 말 중에는 붉은말의 해다. 이 조합은 강렬한 열정과 추진력을 나타내며, 변화와 도전의 해로 해석된다.

올해는 말 중에서도 가장 날렵하다는 평이 있는 붉은말의 해다.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에 의하면 전쟁터에서 등장하는 적토마(赤兎馬)는 주력이 뛰어난 명마였으며 동탁에서 여포로 다시 여포에서 조조로, 조조에서 관우로 주인이 바뀌었으며 최후에는 관우가 죽자 적토마는 먹이를 먹지 않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붉은말의 해인 올해는 말 중에서 뛰어난 붉은말처럼 지혜롭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안보와 경제에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새해 일출을 보려고 가는 것도 규제 안 했다. 새해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계획과 다짐을 요청하는 날이 새해 첫날이다.

병오년 한국의 국가 예산은 727조 9천억 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ㅈ했다. 국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국민은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하는 새해가 되었다.

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월 3일에 시행하며, 지방단체장을 선출하므로 국민 유권자는 선거를 잘해야 한다. 민선에 의해 당선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마음으로 청사를 청와대로 옮겨 새해를 출발했으며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크다.

우리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하느님께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간구했다. 새해에는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며, 더욱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하는 것은 모두의 기도 관심이다. 시작하는 마음은 새 마음이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과 희망을 품고 있는 긍정적 마음이다.

새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사람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제가 다르겠지만, 공통되는 것은 첫째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늘의 나 위치를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함이고 둘째는 내가 나에게 하는 다짐의 기도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을 꼭 이루겠다는 나의 다짐기도 이다. 다음은 내가 하는 일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움을 주시라는 간곡한 간구의 기도이다.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일 년의 365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느님께서 주셨다. 이 시간을 가치와 바꿀 수 있게 투자해야 한다.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데 1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가 일 년의 과제이다. 해야 할 일인 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원칙에 의해, 어떻게 시간 투자를 실천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실천할 수 있는 한 해의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무계획적인 요행을 바라는 일 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시라고 기원하고 있는데, 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한다. 복 받을 일은 안 하면서 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따라서 병오년 새해에 복을 받을 일을 정해야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시간 투자를 해야 복을 받게 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은 새해 목표를 세우라고 해야 하며, 목표를 세웠으면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내가 세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며 많은 꿈이 이루어진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잘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이다.

독자기고

도로의 보이지 않는 위험, 블랙아이스

이 개 헌
신안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경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중 하나는 눈이 아니라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낮 동안 내린 눈이나 비가 도로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다시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을 말합니다.

블랙아이스는 얼음층이 도로 표면에 형성돼 아스팔트 색과 구분이 거의 되지 않아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기 어려우며, 이로인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제설 대응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설 작업 일수는 96일에서 111일로, 제설제 사용량은 17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65건 발생으로 사망 8명, 부상 10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주의력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 안전사고에 대비합시다.

첫 번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야간과 새벽 시간대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밤사이 녹았던 눈·비가 급격히 얼면서 형성됩니다. 두 번째, 교량·터널 입구, 그늘진 도로, 산간 구간 등은 블랙아이스가 잘 생기는 구간으로 항상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겨울철에는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급가속·급제동·급회전을 피하는 '방어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겨울용 타이어나 타이어체인 등을 미리 준비해 접지력을 높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행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횡단보도와 인도에서도 작은 얼음층이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어 낮은 신발,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서행 보행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눈처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개인의 주의와 함께 도로 당국의 선제적 제설·제빙작업과 실시간 기상·영상 정보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겨울 도로 위에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얼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경계심 하나가 대형 사고를 막는 결정적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안길 19-2
회 장 김 경 |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양운필 |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편집국장 박종수
주 필 정기연 |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